

# 원하는 시간에 4주 만에 이수 건국대의 '선택과 집중' 주목

'마이크로레슨' 유연수업 도입  
SW·예술 각 2개 등 12개 과목  
단기 집중교육으로 교양 이수

건국대 상허교양대학이 올 1학기부터 4주 집중 강의로 학점을 받는 '마이크로레슨'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이크로레슨은 16주 가운데 학생이 선택한 4주 동안 교양과목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레슨은 비전공자가 개념이나 적용사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설됐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 주 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수업과는 별개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교양 교과목을 4주 단기 집중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공학계열 학생들은 '스타트업 기업법률실무' 같은 교양 교과목을 단기 집중으로 이수할 수 있다.

마이크로레슨은 교육부의 집중 이수제 도입 허용에 따라 도입됐다. 교육부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을 준수하면서 집중 수업(4주, 8주, 주말·야간) 등 수업 기간을 단축해 교과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크로레슨은 2019학년도 1학기 S



건국대.

W(소프트웨어) 분야 2개, 예술분야 2개, 교양대학 개발 교과목 8개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됐다. 각 과목당 4개 반이 개설된다. 한 학기 16주 가운데 제1반은 1~4주차(3월)에, 2반은 5~8주(4월), 3반은 9~12주(4월말~5월) 4반은 13~16주차(5월말~6월)에 각각 개설된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때 4개 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학생은 학기 중 원하는 시기에 4주 동안 수강하게 되며, 교강사는 학기 동안 해당 커리큘럼을 4차례 강

의한다.

박창규 상허교양대학장은 "마이크로레슨(1학점)의 운영을 통해 교과목 선택권을 양적, 시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 수요자 기반의 교과목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기술 발달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 KT, 스타오디션·지역쿼터제 등 신입 300명 채용

오늘부터 상반기 '열린 채용' 실시

KT는 21일부터 '열린 채용'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채용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전년 상반기 대비 20% 확대된 300여명이다. 신입, 석·박사 및 인턴을 포함한다. 모집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 ▲R&D 총 5개 분야다.

KT의 열린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KT 스타오디션과 전체 채용 인원 중 20% 이상을 지역에 연고 둔 우수 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쿼터

제가 있다. KT 스타오디션은 서류전형 등 일체의 스펙을 배제하고 직무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5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는 오디션 방식의 채용이다. 해당 전형에서 선발된 지원자에게는 정기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KT 스타오디션은 2월 21일부터, 정기공채는 3월 4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채용건강검진을 거치게 된다. 최종합격은 6월에 발표하고, 7월 1일자로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올해 KT는 5G, 플랫폼 등 융합기술 R

&D 분야 채용을 확대한다. 인턴십과 연계된 '4차산업아카데미'를 통해 미래성장사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G, 플랫폼, AI, 실감형미디어, 스마트에너지 등 KT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수료 후 KT 인턴십으로 연계되는 4차산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대상 무상교육과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 인재는 임원면접 후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주간 교육과 인턴십으로 구성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 경희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학·석·박사 총 4723명 학위 수여

경희대 201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경희대는 박사 181명(서울 135명·국제 46명), 석사 529명(서울 304·국제 225), 석박사 통합 21명(서울 5·국제 16) 학사 3992명(서울 2182·국제 1810) 등 총 472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남다른 성취로 새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이 주목받았다. 정경대학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를 졸업한 유보영(15학번·26)씨는 2015년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했다. LG 상사에 다니던 유씨는 지식에 갈증을 느껴 대학 입학을 결정했다. 그는 "무역 회사이다보니 학교에서 배운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무역을 좋아해서인지 전공

수업이 항상 흥미로웠고, 최근에는 '관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꿈을 밝혔다.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한 정백(15학번·32)씨는 지난해 탁월한 성취와 실천 활동을 인정받아 '경희 웃는 사자상'을 수상했다. 이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의 최종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멘사(MENSA)의 회원인 정씨는 '멘사 KOREA 교육위원장'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여름방학교실'을 총괄 운영해 지역 아동들에게 체험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레인메이커(RAINMAKER)'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 '동치미(동생들과 함께하는 치명적인 미소가득)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이범중 기자

## 한국일본학회장에 김환기 동국대 교수

한국일본학회(학회장 이진원) 24대 학회장에 김환기 동국대 일본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주간 교육과 인턴십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고려대에서 열린 제98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2013년 2월까지다.

한국일본학회는 1973년 설립된 한국 최초·최대 일본연구학회다. 한일 간 정치·경제, 역사·문화, 어문학 등 학문적 발전과 인적·학문적 교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인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일본학회 부회장이다.

/이범중 기자

## “질병 9개”... MB, 거듭 보석 요청

구속 만료 코앞... 보석 두고 대립  
檢 “15년형 선고, 해당 사유 안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듭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고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19일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옮겨지고 주심판사가 25일 교체됨에 따라, 재판부가 쟁점정리를 위해 기일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2심은 그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그의 보석 허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의 건강 악화와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만기일에 재판 일정이 쫓겨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했다. 19일에는 보석 신청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며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9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데, 이후 구치소 내 진료만 받은 뿐 외부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대한 증거와 공소사실도 쟁점이다. 정 부장판사가 처음 진행한 지난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만쪽에 달하는 증거와 20여명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새 재판부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 변호



110억 원대 뇌물수수과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통취재단

사는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5~6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원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구치소에서 충분한 치료 체계를 갖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이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염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거나 ▲주거가 분명치 않거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쟁점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과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임의적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로 연장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심급당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은 마지막 갇신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월 16일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범중 기자 joker@

## 올해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지난해 보다 6~24% 내리

올해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이 6~24% 내려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2019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 결정으로 올해 검정교과서 신간본 평균가격은 초등학교 5~6학년은 지난해보다 6%, 중학교 2학년은 24%, 고등학교 전 교과는 4% 인하된다. 초등 5~6학년 평균가격(음악·미술·체육·영어·실과 10책)은 2018년 4987원에서 올해 4670원으로 인하된다.

중2 평균가격(국어·영어·수학·과학 5책)은 2018년 9028원에서 올해 6856원으로 대폭 줄었다.

고교 전 교과 평균가격은 지난해 7940원에서 올해 7625원으로 소폭 인하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3% 줄었고, 특히 중학교 교과의 경우 출판사 희망가격으로 인하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교과서 평균 쪽수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27%, 고등학교는 22% 감소했다.

심의회에서는 출판사의 공정이윤 보장과 교과서 품질 제고를 위해 교과서 기획연구비와 심의본 제작비 증액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범중 기자

## 소년원생 143명 숲에서 심성순화 캠프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삼림 치유 프로그램인 '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이번 행사는 체험형 개방 치유가 학생 심성순화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준비됐다. 캠프는 전국 8개 소년원이 참가하고 있다.

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국립 대안산, 양평 치유의 숲 등 전국 8개 치유의 숲에서 실시한다.

/이범중 기자